

고령 주민의 도시생활 지원 사업 추진

부산시 15분도시기획과 15분도시운영팀
2024.7.2.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2024.8.11.

부산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부산시가 지난 7월 신(新)노년 커뮤니티 공간 '하하센터'의 조성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하하(HAHA)센터는 'Happy Aging! Healthy Aging!'의 약어로, 신노년세대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신노년세대가 자조적 모임을 결성하고 사회 기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사회적 존재감을 높이는 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기존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이용자에 비해 활동성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전국 최초의 공간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소개하였다.

이번에 개소한 하하센터 사하구 신평은 해운대구 재송에 조성된 1호 점에 이은 2호점으로,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도시철도 신평역사 2층을 개축하였다. 공간은 연면적 399m² 규모로 조성되었다. 라운지, 활동실, 음악실, 회의실, 독서실 등이 설치되어 이용자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정식 개소에 앞서 센터 공간에서 지역 병원과 대학으로 구성된 '하하센터 재능기부단'의 신노년세대 맞춤형 강좌를 열어 시설에 대한 홍보에 나선 바 있다.

경기도, 고령친화 주택개조사업 확대 시행

경기도는 고령자의 안전을 위한 주택개조사업인 '어르신 안전 하우스'를 기존 200가구에서 올해 250가구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안전 하우스 사업은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주거지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타일,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실내조명 밝게 만들기 ▲문턱 없애기 ▲좌식 싱크대 설치 등의 목적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 안전한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을 돕게 된다. 각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난 4월 대상 가구를 선정하였고, 사업 대상자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일정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70가구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추진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1%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도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어르신 주거 안전과 복지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